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선관위 산중총회

대구 동화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무공)는 4월 10일 심검당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동화사주지선임의 건 등을 비롯 기타 중무현안 등의 안건이 진행된다.

쌍계사 보살계·정대불사

하동 쌍계사(주지 선곡)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금강계단에 보살계 및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이번 보살계법회는 전계대화상 고산, 갈마아사리 도전, 교수아사리 보성스님을 계사로 실시된다. 또 육조봉찬회 및 중제도 개최한다.

금산사 자비의 탁발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18일 코아백화점 광장에서 제2회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탁발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금산사가 남부시장 등 5곳에서 탁발을 실시해 모금된 6백40여만원의 성금 전액은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과 무료탁발복지시설, 북한어린이의약품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태고종

종무원장·기관장 회의



종무원(원장 인곡)은 18일 회의실에서 전국시도 교구종무원장 및 각급 기관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사인)

이날 회의에서는 25일 선암사에서 개최되는 승려대회에 대해 논의를 갖고 종무원 현판식, 대통령에게 드리는 메시지 낭독,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국난극복과 군운출장 지원 천일기도 입제식도 갖는다.

천태종

전국연리회 단합대회

전국연리회 단합대회가 14, 15일 양일간 부산 삼광사에서 열렸다. 연리회는 전국 사할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들의 모임으로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이번 단합대회에서는 지도교사들의 법회운영 경험, 정보교환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삼통사 21돌 기념법회

삼통사(주지 경천)는 22일 법당에서 21주년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경천스님은 법문을 통해 "강산이 2번 변한다는 2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 21주년을 맞았다"며 "성숙된 불자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각종

서울심인당 사무지도

동리원(동리원장 성초)은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지구 각 심인당 사무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사무지도에서는 97년 재정감사 및 신년 사업에 대한 종단 차원의 행정지도로 이뤄진다.

미타종

월광문도회 26일 회의

총무원(총무원장 직무대행 권승우)은 26일 오후 4시 경남거제 대연사에서 월광문도회(회장 이해봉) 회의를 갖는다.

권승우 총무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는 월광문도회가 종단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설정하면서 개최되게 됐다"며 "문도회 활성화 방안 및 종단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흥종

경제위기극복 지원법회

총무원(총무원장 보인)은 26일 오전 11시 정동문화예술회관에서 창종 17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사인)

8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법회는 1부 기념법회, 2부 수계식으로 진행된다.

원효종

경남교구 보살계 실시

경남교구(종무원장 박송파)는 23일 울산 동련암에서 보살계를 실시했다.

종정 범홍스님이 정제화상으로, 부종정 범송스님이 갈마화상으로 나선 이번 보살계에는 30개 말사 5백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했다.

'무등불심' 일구는 종합도량

무각사 내달 11일 개원 5천여평에 건물 11동 갖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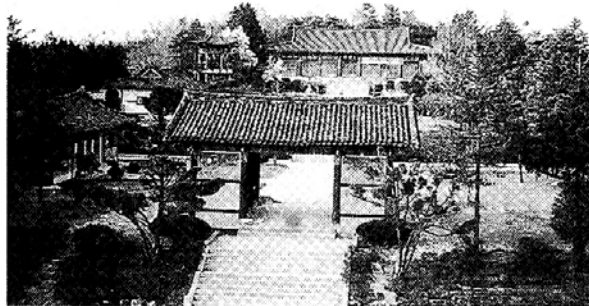
단기출가 수련원 개설 시민선방 점심 법회도

상무대 이전으로 폐사위기에 놓여 있던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가 4월 11일 개원법회를 갖고 신행포교의 종합도량으로 탈바꿈한다.

무각사는 94년 상무대 이전으로 소유권이 광주광역시로 이관됐으나 송광사가 지난해 8월 13일 5년간 소유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광주도 교당으로 재탄생된 것.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5천여평의 대지에 72년 창건된 무각사는 1백10평의 대웅전, 2층 종각, 견성당, 상지당 등 전통식 건물 11종으로 구성된 대형사찰이다.

무각사는 개원에 앞서 첫 사업으로 29일 '제1회 광주지역 불교지도자교육'을 실시한다. 불교지도자교육은 7백여곳의 사찰 주지스님과 각 신행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매일 열린다. 무각사는 또 5월부터 단기출가를 위한 수련원도 개원한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수련원은 발우공양, 불교의식 실수 등 체류위



상무대 이전으로 받쳐줬던 무각사는 4월11일 개원 법회를 갖고 도심포교에 나선다. 4개 본사첩 사무실도 입주해 호남지역 불교센터로 자리잡게 됐다.

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련원은 어린이, 청소년 등 각종 신행단체의 수련회장으로도 개방된다. 특히 무각사 주변에 관공시절, 은행, 상가 등 신도시가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법회, 시민선방 등을 비롯 계층별 법회와 강좌도 개설해 1백30만 광주시민 포교의 새장을 연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밖에 무각사에는 광주불교사

암연합회, 송광사 백암사 등 조계종 4개 교구본사협의회 사무실이 입주했으며, 각 신행단체의 법회공간으로도 개방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중앙에 위치한 무각사 인근에는 2천년가지 시청, 교육청, 방송국 등을 비롯 35만세대가 입주 호남지역 불교포교의 중심도량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김중근 기자



'컴퓨터 배우러 독서실 오세요'

삼성물산 구립신림독서실에 PC 20대 기증 (주)삼성물산은 18일 구립신림초소년독서실(관장 청아스님)에 486컴퓨터 20대와 보안경 20대를 기증했다. 추인보부장(인사과)은 "비록 사무실에서 쓰던 중고품이지만 학생들이 쓸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닦아 깨끗하게 가져왔습니다"고 말했다. 독서실 1층 도서실에 컴퓨터 설치를 끝낸 후 추부장과 청아스님은 컴퓨터기증식을 갖고 기증서를 교환했다. 청아스님은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

광주 대각사서 목사 강연 '종교화합'

복지시설도 자매결연 식도 갖는다. 호산마을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철거위기에 놓여 있는 양지동산의 행정적 지원은 물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종교간의 화합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도산스님은 "종교적 갈등과 문화적 대립은 21세기를 향한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며 "종교간의 교류는 화합은 물론 국민적 총화단결을 위한 초석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광주지역의 종교간의 교류는 지난해 12월 광주 남부경찰서 경순단이 덕명사를 비롯 4개 사찰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신라고찰 법광사지 방치 불사리탑등 유물 훼손·도난 위험

신라시대의 고찰 법광사지(경북도 기념물 20호·포항시 신광면)의 각종 유물이 눈발에 그대로 방치돼 유실이 우려되고 있다. 진광암에 원효가 참선했다고 전해지는 법광사는 인근의 보경사를 말사로 거느렸을 만큼 큰 사찰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전소돼 폐허가 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눈발로 바깥 절터에는 석탑, 쌍귀부, 당간 사 주지)의 법회와 공덕진세의 무대가 마련된다. (042)285-2319 김천사암련회장 법등스님 경북 김천불교사암연합회는 11일 직지사 설법전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법등스님(직지사 부주지)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세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회장에 천대종 금강사주지 지도스님과 계림사주지 명룡스님을 사무총장에는 철불사주지 성운스님을 선출했다.

대전대불청 시민위안 잔치 27-29일...현철 행사도

대불청 대전지구(지구장 송석범)는 27-29일 '경제난극복을 위한 대전시민 위안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7-28일 양일간 수희청년회, 대전불교대학, 대전불자연합회 회원, (주)가산종합건설 사원들이 참여하는 현철운 등이 진행되고 29일 법상스님(수덕

회암사지 전차훈련장 백지화

유적 훼손위기 벗어나 회암사터로 확인돼 전차훈련장 확장계획을 백지화시켰다"고 16일 양주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암사복원추진준비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은 "현재 회암사지 인근에는 군부대, 레미콘공장 등이 있어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며 "공장이전은 물론 발굴지역과 추가발굴지역은 군사시설에서 제외시키는 주변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회암사터로 확인돼 전차훈련장 확장계획을 백지화시켰다"고 16일 양주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암사복원추진준비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은 "현재 회암사지 인근에는 군부대, 레미콘공장 등이 있어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며 "공장이전은 물론 발굴지역과 추가발굴지역은 군사시설에서 제외시키는 주변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영어 청소년 법회 '화제'

연등회관 우리는 선우 형님·누나들이 영·수 지도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특별공부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연등국제불교회관과 우리는 선우 법당에서 실시되고 있어 화제다. 연등국제불교회관의 '청소년영어법회'가 우리는선우의 '선우공부방'이 바로 그것. 다른 법회와 달리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청소년 영어 법회의 교재는 <Buddhism for Youngstudents>, 크리스틴과 캐서린 자매 등 외국인 청소년불자도 참석해 'Life of the Buddha(부처님의 생애)'를 들어가면서 읽으며 토론과 대화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02)735-5347. 우리선우 대학생회(회장 박찬웅)가 중심이돼 자



우리는 선우 대학생회 선배들과 함께 공부하는 고등학생 회원들.

발적으로 꾸려진 선우공부방도 있다. '미래불교를 이끌어갈 선배들의 꿈을 청년불자의 힘으로 엮어 내자'며 대학생회원들이 매주 토·일요일 오후 3시 영어와 수학·목공작업 지도해 준다. 선우공부방은 학과 공부외에 앞으로 03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참선교실, 기초교리교실 등도 열 계획이다. (02)278-8672 <연>

매일 첫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입니다.'

민족의 멋 우리의 옷 에 맥 생활한복

Advertisement for '에 맥' (E-Maek) traditional Korean clothing. It features three photos of models wearing traditional Hanbok. Text includes: '우리옷 "에 맥"의 제품 구성', '수준 높은 천연 염색 실크 제품', '가벼운 소재와 전통미의 생활 한복 및 아동복', '각종 연회 예복 제작', '스님들의 간편복', '신도님들의 단체복, 기도복 제작', '기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Address: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19 (원당BD 202호) (株)에 맥 어패럴. Phone: 737-0804~6, Fax: 723-4599. Branches: 서울 중로구 인사동 1-4번지 (02)723-4600, 서울 중로구 견지동 68-1 (02)738-3939. A map shows the location near Insa-dong and Gyeongju-dong.

Advertisement for '다중용 범요집 및 패블' (Daejung-yong Beomyeog-mit Paebul). It features an image of a book titled '범요집'. Text includes: '다중용 범요집 및 패블', '범요집', '패블', '규격: 높이 7차, 폭 4차 5차', '특징: 방수완벽, 조립 간편', '가격: 90만원 (패블대 포함)'. Address: 서울특별시 용산구 厚岩洞 195-6. Phone: (02)772-9052, Fax: (02)755-0479, (02)672-1333, 723-4599.